



미국 보험회사 성장 전략과 위험

최 원 선임연구원

■ A.M. Best가 미국 보험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¹⁾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수입보험료 저성장 극복을 위한 노력 가운데 위험인수(underwriting discipline) 기준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들은 신규판매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완화된 위험인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는 사후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고 손해율이 상승하는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체의 43.7%로 가장 많이 제기됨.
 - 이밖에 새로운 판매채널을 구축하는데 과도한 비용 지출이 있을 수 있다는 응답이 18.8%,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중요하기는 하나 비용을 절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은 15.7%로 조사됨.
-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저금리가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고 보험산업이 더욱 성숙됨에 따라 양적 성장의 기회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 보험회사들은 무리한 양적 성장의 부작용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수입보험료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상품 및 판매 전략 시행에 있어서는 생명보험회사²⁾와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뚜렷한 전략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건강보험회사의 경우 신상품 개발과 새로운 시장 진입에 주력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 전략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각각 40.6%, 45.1%로 가장 많았으며, 신상품 개발과 판매채널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23.2%, 20.2%로 그 다음으로 많았음.
- 건강보험회사의 경우 신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견이 35.7%,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 28.6%, 새로운 시장 진입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14.3% 순으로 조사됨.

1) A.M. Best(2015. 8), "A.M. Best Spring 2015 Insurance Industry Survey" 참조.

2) 생명보험회사에는 연금보험회사가 포함됨.

〈표 1〉 수입보험료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

(단위: %)

구분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건강보험회사	전체
판매 중인 보험상품 전략에 특별한 변화 없음	40.6	45.1	28.6	43.1
신상품 개발에 집중	23.2	20.2	35.7	21.7
새로운 판매채널 구축	20.3	14.0	14.3	15.6
새로운 시장진입	10.1	8.8	14.3	9.4
기타	5.7	11.9	7.1	8.7

자료: A.M. Best and research.

■ 특히, 건강보험회사들이 신상품 개발과 더불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고객층 확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수요 개발 등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다양한 건강보험 상품에 대한 니즈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강보험회사는 수요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신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고령화로 건강한 노후 생활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어, 연령별, 소득 계층별, 지역별 등 다양한 소비자 집단에 따른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또한, ‘오바마케어(Obama care)’ 시행 등 건강보험 관련 제도 변화로 인해 건강보험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자산운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생명보험회사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모채권(private placements)과 대체투자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해보험회사와 건강보험회사는 짧은 듀레이션과 주식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장기 부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저금리 지속으로 수익률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안으로 사모투자(20.0%)와 대체투자(21.7%)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손해보험회사와 건강보험회사가 짧은 자산 듀레이션을 선호(34.8%, 22.2%)하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부채 만기구조가 상대적으로 짧은 데다 미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어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손해보험회사와 건강보험회사의 경우 주식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응답 비중이 각각 19.7%와 16.7%를 차지하여 생명보험회사(9.6%)보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은 것으로 드러남.

(A.M. Best 등)